

학교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 개발 연구*

이진화 · 최윤덕 · 성민창 · 김혜영**

Lee, Jin-Hwa, Choi, YunDeok, Sung, Min-Chang, & Kim, Heyoung. (2025). Developing a curriculum-based speaking task taxonomy for school English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Korea. *English Teaching*, 80(3), 23–45.

To support English speak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Korean schools, this study developed a taxonomy of English speaking tasks by analyzing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reviewing standardized English speaking tests, and referring to task classifications in the CEFR and ACTFL. Three modes of English speaking were identified in response to different communication contexts and purposes: imitative, interactional, and presentational. Tasks designed to elicit each mode were further classified by task type. Imitative speaking comprised two task types: ‘listen and repeat’ and ‘read aloud’. Interactional and presentational speaking each included three task types, based on the macro functions of language use: interpersonal, transactional, and evaluative/problem-solving. Each task type was further subdivided into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The resulting taxonomy can be aligned with school grade levels in the curriculum by excluding tasks that exceed the relevant achievement standards and by adjusting topics, vocabulary, language forms, and task complexity according to students’ grade levels.

Key words: English speaking tasks, task taxonomy, speaking instruction, speaking assessment, task complexity/영어 말하기 과업, 과업 분류체계, 말하기 지도, 말하기 평가, 과업 복잡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3S1A5A2A03086569).

**First Author: Jin-Hw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unDeok Cho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South Korea; Email: yundeokchoi@cnu.ac.kr

Third Author: Min-Chang S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ourth Author: He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30 June 2025; Reviewed 25 July 2025; Accepted 23 September 2025



© 2025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anyone to copy, redistribute, remix, transmit and adapt the work, provided the original work and source are appropriately cited.

1. 서론

유창한 영어 능력에 대한 높은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의 능숙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왔다. 2024년 116개국 2.1백만명의 영어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 EF 영어능력지수 보고서(*EF 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50위로 보통 수준의 영어 능숙도를 보였는데 이는 2022년 36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Education First, 2022, 2024). 2023년도 iBT 토플 시험 결과 분석에서도 한국은 120점 만점에 86점으로 아시아 32개국 가운데 네팔, 타이완, 중국과 함께 공동 11위에 머물렀고, 특히 말하기 영역 점수는 30점 만점에 21점으로 북한과 같은 수준이었다(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23). 이러한 결과는, 기대 수준에 가장 미치지 못하는 영어 영역이 말하기라는 기존 연구 결과(Jeon, Lee, & Kim, 2011)와 더불어, 학교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을 균형 있게 지도할 것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교실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Lee, 2018; Park, 2016). 여기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환경적 제약, 교사 한 명당 높은 학생 수 비율, 학습자 간 영어 수준 차이, 대학수학능력평가 미 반영 등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영어 말하기 평가의 어려움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Lee, 2018; Park, 2016; Park & Chang, 2016; Park & Min, 2018).

그동안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주로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소리 내어 읽기, 본문 암송, 사전에 준비한 내용 발표하기와 같이 비교적 채점이 명확하고 용이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Lee, 2018; Park, 2016). 그러나 이러한 단순 암기 위주의 일방형 말하기 평가만으로는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영어 말하기 능력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친교나 대인관계를 위해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능력에서부터, 토론이나 물건 사기처럼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능력,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비교적 긴 독백 담화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능력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한다(Richards, 2008).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제의 삶과 연결된 말하기 능력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말하기 과업을 학년군별 위계를 갖추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에 여러가지 말하기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년군별 단순 나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동 간의 관련성이나 위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와 같이, 표준화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taxonomy)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교사와 교재 개발자는 학교 영어 말하기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지도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AI 기반 학습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영어 말하기 구성의 기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영어 말하기 과업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학습 및 평가를 위한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평가 문항과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년군에 따른 과업 난이도 위계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 1)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어떤 말하기 유형을 다룰 것인가?
- 2) 영어 말하기 유형별 과업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3) 영어 말하기 과업은 학년군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 선행 연구

2.1.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 및 평가 실태

우리나라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은 1990년대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Butler, 2009).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가로막혀 효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학교급별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Lee, Lee와 Ahn(2015)의 면담 및 수업 관찰 결과, 교사들은 주로 대화문이나 찬트를 숙제로 외워오게 한 후 확인하거나 학습지를 주고 연습하게 한 후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교사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 앞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인 학생이 10분 후에는 해당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에서 암기나 주변 학생의 발화를 모방한 결과를 성공적인 말하기 능력의 습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수준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Park과 Min(2018)의 연구가 있다. 중학교 영어교사 105명과 중학교 1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의 95%가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행평가 활동으로는 ‘교사 인터뷰’(3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프레젠테이션’(24%), ‘역할극’(20%), ‘본문 암송’(14%)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고등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제별 자유 대화’나 ‘토의 · 토론’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수행평가 활동의 주제로는 교과서 주제(64%)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창의적인 과제’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는 3%로 매우 낮았지만, 학생들은 24.4%의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주제 및 활동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 463명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교수 및 수행평가 실태를 설문 조사한 Lee(2018)에 따르면, 영어 회화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43.8%에 달하였고 일반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말하기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도 49.5%에 불과하였다.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비율 역시 41.9%로 낮았는데, 이 경우 ‘프레젠테이션’(42.8%), ‘소리 내어 읽기’(19.1%),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18.6%), ‘역할극’(11.9%)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30.4%의 교사들이 말하기 직접 평가 대신 시도 교육청 주관 영어 듣기 평가를 말하기 수행평가 점수로 활용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말하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영어 말하기 학습과 평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활동과 평가는 ‘소리 내어 읽기’, ‘문장이나 본문 암송’, ‘사진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이 내용이 정해져 있고 미리 준비된 말하기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즉석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말하기 능력,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없다.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영어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말하기 과업을 접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업 분류 및 구조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다음에서는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과업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과업 유형

모든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정해진 평가틀에 따라 시험을 구성하고 문항을 출제한다. 따라서 영어 말하기 평가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평가 과업을 사용하여 어떤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Lee, Choi, Sung과 Kim(2023)은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말하기 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채점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면서, 인간채점 영어 말하기 시험 6종과 자동채점 영어 말하기 시험

6종의 문항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ee 등(2023)은 12종의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총 10개의 문항 유형을 추출한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말하기 능력 유형에 따라 크게 ‘소리와 형태(Sounds & Forms)’, ‘대화(Conversation)’, ‘담화(Discourse)’, ‘통합(Integr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먼저 ‘소리와 형태’ 범주는 소리 인식 및 재생, 문자와 소리의 연결 등과 같은 기초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 ‘듣고 따라하기(Listen & Repeat)’, 무작위로 주어진 구를 재구성하여 말하는 ‘구 배열하기(Order Phrases)’의 세 가지 과업 유형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리 내어 읽기’ 유형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TABLE 1
Test Item Types in Automated Speaking Scoring Tests (Lee et al., 2023, p. 233)

Tests	Sounds & Forms			Conversation			Discourse			Integration
	Listen & Repeat	Read Aloud	Order Phrases	Listen & Answer to Closed Qs	Listen & Answer to Open Qs	Answer Using Info. Provided	Describe Pictures/Images	Tell a Story with Pictures	Extended Talk	Integrated Speaking
TOEFL® Practice Online									V	V
Duolingo English Test		V					V		V	
ASS* EnglishScore Speaking	V	V				V				
Linguaskill General		V			V	V			V	
PTE Academic	V	V		V			V			V
Versant English Test	V	V	V	V						V
Frequency	3	5	1	2	1	2	2	0	3	3
TEPS		V			V		V	V	V	
NEAT Level2					V		V	V	V	
NEAT Level3					V	V		V	V	
GEPT Elementary	V	V			V					
Non-ASS GEPT Intermediate		V			V		V		V	
GEPT High-Inter.					V	V	V		V	
TOEIC		V			V	V	V		V	
TOEFL Junior		V						V		V
TOEFL iBT									V	V
Frequency	1	4(5)**	0	0	4(7)	2	4(5)	3(4)	5(6)	2

Note. *Automated Speaking Scoring; **number of tests (number of tests counting sub-level tests of NEAT and GEPT)

다음으로 ‘대화’ 범주는 즉석에서 질문을 듣고 이에 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과업 유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듣고 정답 말하기(Listen & Answer to Closed Questions)’, 일상대화에 가까운 ‘열린 질문 듣고 답하기(Listen & Answer to Open Questions)’, 주어진 그림, 도표, 포스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질문에 답하는 ‘주어진 정보 활용하여 답하기(Answer Using Information Provided)’가 있었다. ‘담화’ 범주는 비교적 긴 독백 담화를 유도하여 측정하는 문항으로, 화면에 주어진

사진이나 도표를 묘사하는 ‘그림 묘사하기(Describe Pictures/Images)’, 일련의 그림이나 사진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서술하는 ‘그림 연결하여 이야기하기(Tell a Story with Pictures)’, 제시된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개진하는 ‘확장형 말하기(Extended Talk)’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범주는 말하기와 다른 기능을 결합하여 측정하는 ‘통합’ 말하기로,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업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말하기 능력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 채점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범주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과업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표 1의 과업 분류체계를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의 차이 때문인데,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는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반해,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익힌 영어의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역할을 하는 ‘ACTFL 언어 수행 기술서(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2, 이하 ACTFL) 문서에서는 능숙도(Proficiency)와 수행(Performance)을 구분하고 있는데, 능숙도는 “사전에 미리 연습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the ability to use language in real world situations in a spontaneous interaction and non-rehearsed context)”으로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습했는지와 무관한 반면, 수행은 “교수 상황에서 배우고 연습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the ability to use language that has been learned and practiced in an instructional setting)”을 의미한다(p. 4). 이에 따라 능숙도 평가는 수험자의 학습 경험 및 내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수행 평가는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수행 평가의 경우에도 학습한 내용 그대로를 단순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속성상 수행 평가에 해당하며,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영어과 평가의 방향으로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새로운 맥락과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의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 27, 이하 MOE, 굵은 글씨 강조 추가). 따라서 학교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에는 반드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의 또 다른 특징은 학년군별 위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는, 간혹 연령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단일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시험에서의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그러나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는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의 경우, 성취기준이 학년군별로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기준 간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일선상에서의 측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 수준의 영어 말하기 평가들은

수준별로 별도의 시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도 과거 시험 운영 당시 학습자 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 시험이 별도로 개발되었다(Chae, 2015). 따라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학년군 위계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 내용과 수준별 위계를 고려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에서는 여러 층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습 과업을 세분화하고 수준별 수행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과업 분류체계를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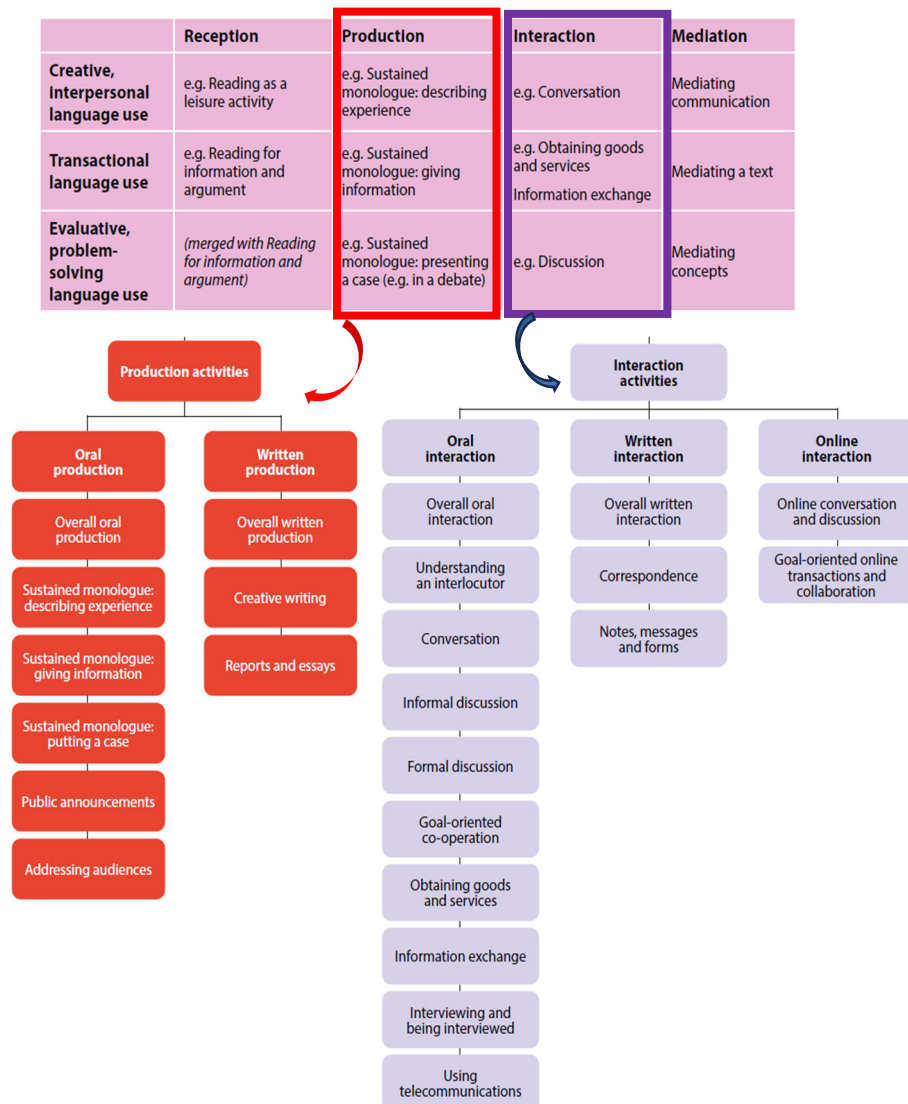
유럽과 미국은 일찍부터 역량 중심 외국어 교육을 표방하고 실생활과 연관된 학습 과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Lee, 2022). 먼저 유럽의 외국어 교육 지침인 ‘유럽언어공통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에서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수행하는 과업인 ‘의사소통 언어 활동(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을 그림 1과 같이 분류한다(Council of Europe, 2020). CEFR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분류 대신 의사소통 모드(communication mode)에 따라 ‘수용(Recep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생성(Production)’, ‘매개(Mediat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의 활동이 구두로 이루어지면 말하기 활동이 된다.

각 의사소통 모드 활동은 언어 사용 기능(macro functions)에 따라 다시 ‘창의적,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Creative, interpersonal language use)’,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 사용(Transactional language use)’,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사용(Evaluative, problem-solving language u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같은 ‘상호작용’ 모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대화는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 물건이나 서비스 획득하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 사용’,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 사용’에 해당된다.

CEFR은 각 의사소통 모드별 활동을 더 세밀한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 모드 활동의 경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전달 매개에 따라 ‘구두 생성’과 ‘문자 생성’으로 나누고, 말하기에 해당하는 ‘구두 생성’은 다시 전반적인 말하기 양상을 제시한 첫번째 범주를 제외하면 ‘경험 묘사하기’, ‘정보 제공하기’, ‘주장하기’, ‘공지하기’, ‘발표하기’의 다섯 개 말하기 활동으로 구분한다. ‘상호작용’ 모드 역시 전달 매개에 따라 ‘구두 상호작용’, ‘문자 상호작용’,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말하기와 관련된 ‘구두 상호작용’은 총괄 기술을 제외하면 ‘상대방 이해하기’, ‘대화하기’, ‘가벼운 토론하기’, ‘격식을 갖춘 토론하기’, ‘목표 지향 협업하기’, ‘물품과 서비스 획득하기’, ‘정보 교환하기’, ‘인터뷰하기와 받기’, ‘통신 사용하기’의 아홉 개 범주로 구분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은 '온라인 대화와 토론하기'와 '목적 지향 온라인 정보교환 및 공동작업하기'의 두 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과업 범주들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목적과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범주의 분류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층위가 균일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외국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충분히 유용하다.

FIGURE 1
Classification of 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 in CEFR
 (Adapted from Council of Europe, 2020, p. 33, p. 61, & p. 71)



한편, 미국의 외국어 교육 과업 분류체계는 ‘능력 진술문(NCSSL-ACTFL Can-Do Statements)’(ACTFL, 2017)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의사소통’을 모드에 따라 ‘화자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해석형 의사소통(Interpretive communication)’, ‘제시형 의사소통(Presentational communi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는데(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5), 이는 CEFR의 ‘상호작용’, ‘수용’, ‘생성’과 비슷하다. 미국의 능력 진술문은 이 세 가지 의사소통 모드 각각에 대하여 ACTFL 능숙도 수준별로 수행기술 및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습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에 대한 초급 수준(Novice Level)의 수행기술이다. 능력 진술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최상단에는 해당 능숙도 수준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기술한 ‘능숙도 기준(Proficiency benchmark)’이 나오고(① 참조), 그 아래에는 해당 능숙도의 하위 수준별 지표인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s)’가 제시되어 있다(② 참조). 그런데 ‘수행 지표’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과업 범주로 나뉘어 제시되는데, 그림 2에서 ‘제시형 의사소통’은 ‘나의 삶, 경험, 사건에 대하여 서술하기 위한 정보 제시’, ‘선호, 의견, 혹은 설득을 위한 정보 제시’, ‘알리거나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과업 범주는 모든 능숙도 수준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수행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예시(Examples)’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학습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시들은 일차적으로 전달 매개에 따라 ‘말하기 혹은 수화’와 ‘쓰기’로 구분된다(③ 참조). 그림 2에 따르면, 초급-하 수준의 학습자가 ‘선호, 의견, 혹은 설득을 위한 정보 제시’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거나 증명하고자 한다면, ‘가고 싶은 장소 나열하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스포츠 말하기’ 등과 같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러한 미국의 과업 분류체계는 유럽의 CEFR과 비교했을 때, 과업 범주 구분이 전달 매개보다 우선한다는 점과 과업 범주의 수가 적은 대신 예시 과업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과업 분류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능숙도 수준에 따른 위계 설정이다. CEFR은 각 과업 범주에 대하여, CEFR 능숙도 수준(A1 ~ C2)에 따라 수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기술문(illustrative descriptors)’을 제공하는데, 이때 능숙도별 수행 수준은 소재, 어휘, 길이, 정확성, 담화 구조, 사회언어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조절한다. 또한, ‘격식을 갖춘 토론’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 과업의 경우에는 낮은 능숙도 수준의 예시기술문을 제공하지 않는다(Council of Europe, 2020). 미국의 능력 진술문 역시, 언어 기능, 내용, 텍스트 유형, 언어 사용, 어휘, 책략, 문화적 인식을 고려하여 ACTFL 능숙도 수준별(Novice Low ~ Superior) 수행 양상을 제공한다(ACTFL, 2012).

CEFR과 ACTFL 능력 진술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의 과업 수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과업 복잡도(task complexity)가 있다. Robinson(2011)에 따르면, 과업 복잡도는 과업 요소의 양([+/- few elements]), 추론 여부([+/- reasoning]), 관점 취하기 여부([+/- perspective taking])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같은 길 묻기 과업이라도 다루어야 할 요소의 양이 적고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과업 복잡도가 낮아지고, 많은 요소를 다루거나 추론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업 복잡도가 높아진다.

FIGURE 2

Classification of Language Activities in CanDo Statements: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for Novice Level (Adapted from ACTFL, 2017, p. 4 & p. 13)

PROFICIENCY BENCHMARK

I can present information on both very familiar and everyday topics using a variety of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and simple sentences through spoken, written, or signed language.

How can I present information to
narrate about my life, experiences and events?

PERFORMANCE INDICATORS

NOVICE LOW

I can introduce myself using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and phrases, with the help of gestures or visuals.

NOVICE MID

I can present information about myself, my interests and my activities using a mixture of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and simple sentences.

NOVICE HIGH

I can present personal information about my life and activities, using simple sentences most of the time.

How can I present information to
give a preference, opinion or persuasive argument?

PERFORMANCE INDICATORS

NOVICE LOW

I can express my likes and dislikes using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and phrases, with the help of gestures or visuals.

NOVICE MID

I can express my likes and dislikes on very familiar and everyday topics of interest, using a mixture of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and simple sentences

NOVICE HIGH

I can express my preferences on familiar and everyday topics of interest, using simple sentences most of the time.

How can I present information
to inform, describe, or explain?

PERFORMANCE INDICATORS

NOVICE LOW

I can name places, on memorized help of ge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list places I like to go to see art or listen to music.
I can tell sports I like or don't like.
I can say names of my favorite animals based on pictures I see.
I can look at pictures on a menu and name foods based on my likes and dislikes.
I can state some activities which I enjoy.

NOVICE MID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tell where I like to go to see art or listen to music.
I can say how much I like or don't like certain foods.
I can state my favorite free-time activities and those I don't like.
I can state which actor or author I like the best.
I can say which school subjects are my most and least favorite.

NOVICE HIGH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recommend places to experience a variety of art and music styles.
I can tell about my favorite actor or author.
I can tell about others' likes and dislikes.
I can present a brief description of a website I find useful.
I can give a few details about my favorite restaurant.

EXAMPLES: Speaking or Signing

NOVICE LOW

NOVICE MID

NOVICE HIGH

EXAMPLES: Writing

NOVICE LOW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list places I like to go to see art or listen to music.
I can create a simple chart of a few things I like and dislike.
I can label the things I like and don't like in a picture.
I can write a list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characteristics of a friend.
I can list my favorite free-time activities to create a survey for my peers.

NOVICE MID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write where I go to see art or listen to music.
I can write how much I like or don't like certain sports.
I can create a bulleted list telling why a class is my favorite.
I can write a rank ordered list of my favorite and least favorite free-time activities.
I can caption pictures of what I consider to be good and bad lunch options.

NOVICE HIGH

I can... (customize with specific content).
I can recommend places to experience a variety of art and music styles.
I can write about others' likes and dislikes in order to form a team or work group.
I can create a slogan and short description for an advertisement.
I can write a description of my favorite character from a story.
I can make a simple poster to campaign for a person or event.

Developing a Curriculum-based Speaking Task Taxonomy for School English Instruction and Assessment...

이상의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과업 분류체계는 실생활의 말하기 과업을 어떻게 분류 및 유형화하고 위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 영어 수업 및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과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및 평가의 대상이 되는 말하기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설계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학교군, 고등학교 공통영어 1 & 2) 성취기준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되는 성취기준만을 선별하여 말하기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각 말하기 유형을 도출하는 데에 사용할 과업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말하기 관련 활동들을 목록화하였다. 이후 말하기 과업들을 과업 유형, 범주 및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과업 유형 분류는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과 CEFR의 언어 사용 기능을 참조하였다. 이를 다시 과업 범주로 구분하는 데에는 유럽의 CEFR과 미국의 능력 진술문의 과업 범주명을 참조하였고,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는 데에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 수준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우선, 각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과업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러 학년군에 적용되는 과업 범주에 대해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주제, 권장 어휘 목록, 문장 길이 등과 함께 Robinson(2011)의 과업 복잡도를 참고하여 수준별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4. 결과

4.1. 학교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에서의 말하기 유형

효과적인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표로 하는 말하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하기는, 쓰기, 제시하기와 함께 ‘표현(production)’ 영역에 속한다. 또한, ‘표현’ 영역은 ‘이해(reception)’ 영역과 결합하여 ‘화자 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말하기 교육에 단독 말하기(담화)와 대화가 모두 포함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 및 활동에 관한 기술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는 공통 교육과정(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학교군)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과목(고등학교 공통영어 1 & 2)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된 성취기준만을 추출한 것이다. 말하기 과정(예: 매체나 책략 사용 등)과 말하기 태도(예: 대화 예절, 배려, 존중 등)에 관한 성취기준은 제외하였다.

TABLE 2
Achievement Standards Relevant to Speaking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E, 2022)

Grade	Achievement Standards
3-4	[4E02-01] Listen and repeat easy and simpl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proper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4E02-04] Speak easy and simple sentences or write words or phrases by looking at real objects, pictures, or actions. [4E02-05]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introducing or describing oneself, people, or objects around. [4E02-06]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about instructions. [4E02-07]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expressing one's feelings. [4E02-08] Ask and answer about the key information of discourses on topics in one's surroundings.
5-6	[6E02-01] Speak simpl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the proper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6E02-02] Speak or write simple words, phrases, or sentences by looking at real objects, pictures, or actions. [6E02-04] Introduce or describe people or objects around them in simple sentences. [6E02-05] Explain nearby places or locations, or the order of actions or instructions in simple sentences. [6E02-06] Express one's feelings, opinions, experiences, or plans in simple sentences. [6E02-07] Ask or answer about the details of spoken or written discourses on everyday topics in simple sentences.
9	[9E02-01] Speak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proper assimilated or contracted sounds. [9E02-02] Describe the feelings of a subject or character. [9E02-03] Explain factual information about familiar topics. [9E02-04] Describe an experience or plans about familiar topics. [9E02-05] Explain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events about familiar topics. [9E02-06] Express own opinions on familiar topics. [9E02-07] Listen to or read familiar topics and provide a summary.
10*	[10CE1/2-02-01] Explain content using real objects, pictures, photos, charts, etc. [10CE1/2-02-02] Convey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through speech or writing. [10CE1/2-02-03] Talk or write about experiences or plans. [10CE1/2-02-04] Express one's thoughts, opinions, feelings, or impressions. [10CE1/2-02-05] Summarize and present content that has been listened to or read.

Note. *For the high school level, only Common English 1 and Common English 2 are included.

초등학교 3~4학년군에 가장 먼저 제시된 성취기준은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한다’로, 이것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어진 영어 표현을 그대로 재생하는 말하기이다. 다음으로는 ‘실물, 그림, 동작 등을

보고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단어나 어구를 쓴다’, ‘자신, 주변 사람이나 사물의 소개나 묘사를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 ‘행동 지시를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 ‘자신의 감정을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와 같이 직접 의미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말하기 과업들이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성취 기준에는 해당 과업이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독백이나 발표 상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생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들 과업은 대화로도, 짧은 담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기 주변 주제에 관한 담화의 주요 정보를 묻거나 답한다’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대화 말하기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준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주제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지고 발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중학교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연음이나 축약음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의미의 생성보다는 발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대상이나 인물의 감정을 묘사한다’, 친숙한 주제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설명한다’, ‘경험이나 계획을 설명한다’, ‘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와 같은 의미 중심의 말하기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말하기 활동은 대화 상황과 담화 상황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다만 초등학교군에 비해 묘사, 설명 등의 활동 방식이 추가되면서 담화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진다. 한편, ‘친숙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내용을 요약한다’는 초등에는 없었던 성취기준으로 중학교에서 처음 등장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담화형 말하기에 가깝다. 고등학교 공통영어의 성취기준 활동은 대체로 중학교와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영어 말하기 유형을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주어진 표현을 듣고 따라하거나 소리 내어 읽는 ‘모방 말하기(imitative speaking)’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분류 체계에서는 주요 범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취기준이자 초기 말하기 학습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말하기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초등 3~4학년군의 성취기준 [4영02-01], 초등 5~6학년군의 [6영02-01], 중학교군의 [9영02-01]이 해당된다. 한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리 내어 읽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인 “[4영01-04]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며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MOE, 2022, p. 10)와 “[6영01-02]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 (MOE, 2022, p. 15)를 초등 3~4학년군과 초등 5~6학년군의 ‘이해’ 영역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이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Lee et al., 2023)을 감안하여 모방형 말하기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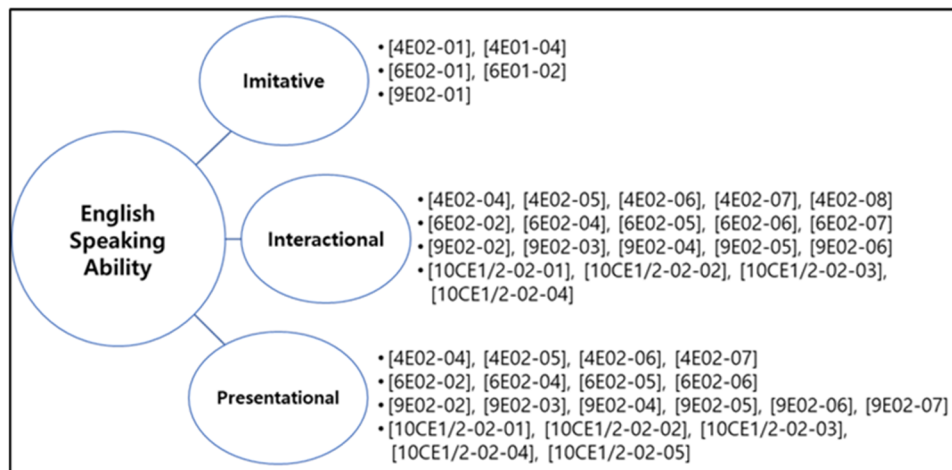
두번째 말하기 유형은 즉석에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상호작용 말하기(interactional speaking)’로, 유럽 CEFR의 ‘상호작용’ 모드, 미국 능력 진술문의 ‘화자 간 의사소통’ 모드와 유사하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4영02-01], 초등 5~6학년군에서는 [6영02-01], 중학교군에서는 [9영02-01]과 [9영02-07],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10공영1/2-02-05]를 제외한 모든 성취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번째 말하기 유형은 ‘제시형 말하기(presentational speaking)’이다. 상대방이나 청중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개입 없이 비교적 긴 담화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독백형 말하기로 유럽 CEFR의 ‘생성’ 모드, 미국 능력 진술문의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와 비슷하다. 앞서 ‘상호작용 말하기’에 속한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제시형 말하기’에도 속한다. 같은 성취기준이라도 ‘상호작용 말하기’로 이루어질 때와 ‘제시형 말하기’로 이루어질 때의 수행 양상은 다를 수 있다. 가령, 계획 말하기에 관한 [9영02-04]의 경우, 친구와 주말 계획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와, 자신의 방학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어휘, 구문, 담화 구조, 책략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말하기 유형을 모두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읽거나 듣고 요약하기’ 활동인 [9영02-07], [10공영1/2-02-05]는 ‘제시형 말하기’로만 분류하였다.

FIGURE 3

English Speaking Type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4.2. 영어 말하기 유형별 과업 분류

그림 3의 세 가지 유형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말하기를 도출할 수 있는 과업을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체계표를 분석하였다. 내용체계표는 성취기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표 2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내용체계표에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가 제시되어 있는데, 표 3은 이 가운데 과업과 관련이 높은 ‘과정·기능’ 범주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한 후, 과업 유형 도출을 위해 관련성이 높은 항목끼리 묶고 학년군별 연속성과 위계가 드러나도록 재배열한 것이다.

TABLE 3
Content Structure of the ‘Production’ Area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E, 2022)

Level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Grades 3–4	Grades 5–6	Grades 1–3	Grade 1
Process & Skills	• Listening and repeating with appropriate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 Speaking with appropriate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 Using assimilated and contracted sounds	
	• Speaking or writing using realia, pictures, gestures, etc.	• Speaking or writing using realia, pictures, gestures, etc.	• Describing pictures, photos, charts, etc.	• Describing or explaining using realia, pictures, photos, charts, etc.
	• Greeting others • Introducing oneself • Describing people or objects around	• Introducing people around • Describing people or objects around	• Describing people, objects, etc.	•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 Giving instructions	• Explaining nearby places, locations, action sequences, or methods	• Explaining locations or places, etc. • Explaining methods or procedures • Explaining the sequence and relations of events • Explaining causes and effects of events	•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 Expressing feelings	• Describing feelings, opinions, experiences, or plans	• Describing moods or feelings • Explaining experiences or plans • Asserting one’s own opinions	• Describing experiences or plans • Expressing opinions, feelings, and impressions
	• Asking or answering about main information	• Asking or answering about specific information	• Summarizing what was heard or read	• Summarizing what was heard or read

먼저, 발음과 관련된 활동이 초등 3~4 학년군(‘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 초등 5~6학년군(‘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하기’), 중학교군(‘연음 및 축약된 소리 활용하기’)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공통영어에는 발음과 관련된 말하기 활동은 없는데, 이는 발음 학습 대부분이 이전 학교급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발음 교육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으로 실물이나 시각 자료를 보고 말하는 활동이 모든 학년군에 포함되어 있다. 초등 3~4학년군과 초등 5~6학년군의 ‘실물, 그림, 동작 등을 보고 말하거나 쓰기’는 중학교군에서는 ‘그림, 사진, 도표 등 설명하기’,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실물,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로 바뀌면서 사진과 도표가 추가되고 단순 말하기에서 설명하기, 묘사하기로 확장된다.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활동도 모든 학년군에서 볼 수 있는데, 초등 3~4학년군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단계의 ‘인사 나누기’와 ‘자기 소개하기’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인사 나누기’는 사라지고 ‘자기 소개하기’는 ‘주변 사람 소개하기’로 대상이 확장된다.

정보 전달 목적의 활동은 학년군 간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행동 지시하기’만이 나타나지만,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주변 장소나 위치, 행동 순서나 방법 설명하기’로 확대되고, 중학교군에서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되어 ‘위치나 장소 등 설명하기’, ‘방법이나 절차 설명하기’,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설명하기’,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설명하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사실적 정보나 지식 전달하기’로 압축된다.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 역시 모든 학년군에서 발견된다. 초등 3~4학년군의 ‘감정 표현하기’는 초등 5~6학년군에서는 ‘감정이나 의견, 경험이나 계획 기술하기’로 확대되고, 중학교군에서는 여기에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가,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감상 표현하기’가 추가된다. 한편,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에 대한 묻고 답하기’는 초등학교군에서만, ‘듣거나 읽고 요약하기’는 중학교군과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만 등장한다.

표 3은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나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동 간 관계 및 층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과업 유형을 참고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표 4와 같이 개발하였다. 과업 분류체계표에서는 그림 3의 각 말하기 모드를 도출할 수 있는 과업을 먼저 ‘과업 유형(task types)’으로 구분하고, 각 과업 유형은 다시 과업 ‘범주(categories)’ 및 ‘하위 범주(subcategories)’로 세분하였다.

먼저 ‘모방 말하기’ 모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평가 과업을 고려하여, ‘듣고 따라하기’와 ‘소리 내어 읽기’의 두 가지 과업 유형을 설정하였다. ‘듣고 따라하기’ 과업 유형은 각각 단어와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로 세분하고, ‘소리 내어 읽기’

과업 유형은 여기에 이야기 수준을 추가하여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나머지 두 가지 말하기 모드에 대해서는 유럽 CEFR을 참조하여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세 가지 과업 유형, 즉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과업 유형 아래에는 CEFR과 미국 능력 진술문의 활동 범주 수준에 해당하는 과업 범주를 두고, 과업 범주는 다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말하기 활동 내용을 담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TABLE 4
Task Taxonomy for a School-Based English Speak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Speaking Modes	Task Types	Categories	Subcategories
Imitative	Listen & repeat	Words	
		Sentences	
	Read aloud	Words	
		Sentences	
		Stories	
Interactional	Interpersonal	Everyday conversation	Greetings & introducing oneself
			Talking about daily life (e.g., daily schedules, hobbies, weekend plans, etc.)
			Requesting & responding (e.g., invitation, help, advice, approval)
	Transactional	Exchanging information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people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objects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places
	Evaluative, problem-solving	Obtaining goods & services	Obtaining goods (e.g., ordering food, purchasing goods, purchasing tickets)
			Obtaining services (e.g., making reservations, using transportation, etc.)
		Exchanging feelings & opinions	Exchanging feelings
			Exchanging opinions
Presentational	Interpersonal	Describing	Introducing oneself & other people
			Describing objects
			Describing places
		Narrating	Narrating experiences
			Narrating schedules & plans
	Transactional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Narrating stories
			Explaining visual information (e.g., signs & posts, tables & charts)
			Summarizing
		Explaining relationship	Explaining methods & procedures
			Explaining the logical relationship
	Evaluative, problem-solving	Expressing feelings & opinions	Expressing feelings
			Presenting opinions & solution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작용 말하기’는 먼저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유형은 ‘일상대화’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말하기 활동을 반영하여 ‘인사 나누기 및 자기 소개하기’, ‘(일정, 취미, 주말 계획 등) 일상 생활에 대해 말하기’, ‘(초대, 도움, 충고, 허락 등) 요청하고 답하기’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과업’ 유형은 ‘정보 교환하기’와 ‘물건 및 서비스 획득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다. ‘정보 교환하기’ 범주는 다시 사람, 사물, 장소에 대한 정보 교환하기로, ‘물품 및 서비스 획득하기’ 범주는 ‘(음식 주문하기, 물건 구매하기, 티켓 구매하기 등) 물품 획득하기’와 ‘(예약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서비스 획득하기’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은 ‘감정과 의견 교환하기’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그 아래에 ‘감정 교환하기’와 ‘의견 교환하기’ 하위 범주를 두었다.

세번째 말하기 모드인 ‘제시형 말하기’ 역시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세 가지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유형은 ‘묘사하기’와 ‘서술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고, 각 범주는 다시 묘사나 서술의 대상에 따라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과업’ 유형은 ‘사실 정보 설명하기’와 ‘관계 설명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다. ‘사실 정보 설명하기’ 범주 아래에는 ‘(표지판, 표, 차트 등) 시각 정보 설명하기’와 ‘요약하기’의 하위 범주를 두고, ‘관계 설명하기’ 범주 아래에는 ‘방법이나 절차 설명하기’와 ‘논리적 관계 설명하기’의 하위 범주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은 ‘감정과 의견 표현하기’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이는 다시 ‘감정 표현하기’와 ‘의견과 해결방안 제시하기’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4.3. 영어 말하기 과업의 학년군별 위계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년군별로 위계를 두어 성취기준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이러한 위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의 과업 분류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학년군별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의 과업 분류체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과업을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취기준의 수와 수준이 제한적인 초등학교군에서는 너무 복잡한 과업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가령, 긴 담화 수준 발화를 요구하는 ‘이야기 소리 내어 읽기’나 ‘이야기 서술하기’, 중학교군에서 처음 등장하는 ‘요약하기’, ‘논리적 관계 설명하기’ 등은 초등학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여러 학년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업 범주 혹은 하위 범주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과업 난이도에 차이를 둔다. 가령, ‘모방 말하기’ 모드에서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듣고 따라하기’나 ‘소리 내어 읽기’ 과업 유형은,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어휘목록에서 선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위계를 반영할 수 있다. ‘상호작용 말하기’ 나 ‘제시형 말하기’ 모드인 경우에는 주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수준, 과업 복잡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제면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대로 초등학교군은 자기 주변 및 일상 생활 주제, 중학교군은 친숙한 주제, 고등학교군은 친숙한 일반적 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자연스럽게 어휘 수준, 문장 수준 및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과업 복잡도는 과업 요소의 양, 추론 여부, 관점 취하기 여부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Robinson, 2011). 예를 들어 ‘상호작용 말하기’ 모드의 ‘의견 교환하기’ 과업을 챗봇을 활용하여 개발한다고 할 때, 그림 4와 같이 과업 복잡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FIGURE 4

Task Alignment with School Levels: ‘Exchanging Opinions’ Task

Grades 3-4	미션 I'm planning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my close friend Minji after class this Friday. Plan the party with your classmate Jenny. procedure 1. Decide on a location 2. Choosing a gift   
Grades 5-6	미션 I'm planning a sleepover pajama party at Jenny's house this Saturday. Plan the party with Jenny. procedure 1. Decide what to do 2. Deciding on food 3. Decide where to sleep  
Grade 7-9	미션 The class presidents are gathering opinions on booths to run at next month's school festival. Discuss the three suggestions below with your international classmates and decide which booth would be best. Conversation progression order 1. Decide on the desired booth and content 2. Ask your friend's hopes and reasons   Cotton candy booth  VR booth  Photo booth

Grade 10

I'm planning to participate in a career experience program run by a Korean university with a foreign friend during this vacation. Discuss with your friend and decide which program to participate in.

procedure

1. Start the conversation by saying, "Hey, there are so many career education programs at Hankook University."
2. Tell your friends about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3. Discuss and decide on a program to listen to together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rogram name	Target participants	Training location
Fitness education for body consulting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Hankook University
Florist	High school students	Hankook University
Storytelling teacher training	High school students	Affiliated high school

초등 3~4학년군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생일파티 장소, 선물)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만,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세 가지 항목(할 일, 음식, 잠잘 곳)으로 과업 요소가 증가한다. 중학교군에서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좀 더 세밀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세 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 희망 부스 및 활동 내용),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의 의견과 이유를 확인하여 조율하는 사고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과업 복잡도가 훨씬 높아진다.

한편, 중학교 수준까지는 항상 챗봇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하고 주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반면, 고등학교 공통영어 수준에서는 학습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여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 수준의 과업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같은 과업이더라도 언어적 요소와 과업 복잡도를 고려하여 학년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말하기 과업을 추출하고,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의 문항 유형, 유럽의 CEFR 및 미국의 능력 진술문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과업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영어 말하기 능력은 ‘모방 말하기’, ‘상호작용 말하기’, ‘제시형 말하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의사소통 모드에 따라 외국어교육의 목표와 과업을 구분하는 것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말하기 유형은 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사용되는 언어 형태, 구조, 책략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영어 교육에서 세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한

학습과 평가가 필요하다.

각 말하기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과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을 추출하여 유형화하고 구조화하였다. ‘모방 말하기’ 유형은 ‘듣고 따라하기’와 ‘소리 내어 읽기’의 두 가지 과업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모방해야 하는 언어의 범위에 따라 어휘, 문장, 이야기 범주로 세분하였다. ‘상호작용 말하기’와 ‘제시형 말하기’는 일차적으로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실제 삶과 관련된 학습을 목표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에 있어서 특정 언어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우선 순위에 두도록 한 것이다. ‘상호작용 말하기’ 유형은, 세 개 과업 유형 아래에 다시 네 개 범주와 여덟 개 하위 범주를 두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대화형 말하기 활동을 분류하였다. ‘제시형 말하기’ 유형의 경우에는 세 개 과업 유형 아래에 다섯 개 범주와 12개 하위 범주를 두었다.

이러한 과업 분류체계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과업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동일 과업 범주에 대해서는 주제, 언어 수준, 과업 복잡도를 학년군의 수준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위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공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과업의 예시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교사와 교재 개발자들은 구체적인 말하기 지도 방안과 평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기반 영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된 학습 단위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말하기 학습 모델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plicable levels: Primary, secondary

REFERENCES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2). *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 Alexandria, VA: ACTFL.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7).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Performance indicators for language learners*. Retrieved on May 26, 2025, from <https://www.ncssfl.org/linguafolio-linguagrow/2017-can-do-statements/>

- Butler, Y. G. (2009). How do teachers observe and evaluat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eign language performance? A case study from South Korea. *TESOL Quarterly*, 43(3), 417–444.
- Chae, J. K. (2015). A time lag approach to causes of the failure in the policy of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2(3), 1–31.
- Council of Europe. (2020).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 Companion volume*. 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Education First. (2022).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Zurich, Switzerland: EF Education First.
- Education First. (2024).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Zurich, Switzerland: EF Education First.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23). *TOEFL iBT® test and score data summary 2023*.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Jeon, J., Lee, W., & Kim, J.-R. (2011). Investigating the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level Korean people want to achieve. *English Teaching*, 66(2), 273–305.
- Lee, J.-H. (2022). The analysis of CEFR and USA foreign language curriculum for developing a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051–1077.
- Lee, J.-H., Choi, Y., Sung, M.-C., & Kim, H. (2023). Analysis of English automated speaking scoring tests. *English Teaching*, 78(2), 223–244.
- Lee, K.Y., Lee, W., & Ahn, K. (2015).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of teaching of the speaking in primary ELT and some strategies for improvement. *Primary English Education*, 21(4), 85–114.
- Lee, M (2018). A study of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teaching English speak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7(1), 107–126.
- Ministry of Education. (2022). *English curriculum*.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5).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 (4th ed.). Alexandria, VA: ACTFL.
- Park, S.-Y., & Min. C. K.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middle school English speaking performance assess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4), 847–866.
- Park, T. (2016). Examining how performance assessment in English is being implemented in high schools and how it is perceived by teachers and student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9(3), 77–98.
- Park, T., & Chang, J. (2016). A study on high school teachers' opinions about issues of classroom assessment. *Secondary English Education*, 9(4), 95–115.

- Richards, J. (2008). *Teaching listening and speaking.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P. (2011). Second language task complexity, the cognition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and performance. In P. Robinson (Ed.), *Second language task complexity: Researching the cognition hypothesis of language learning and performance* (pp. 3–37).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